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6/02/16~2026/02/22]

2026.02.23

[로봇] 기대감 VS 효용성

- 보스턴다이나믹스, CEO에 이어 로봇 연구 부사장 사의. 체질 변화 본격화
- 한국 AI로봇산업협회 회장에 삼성전자 오준호 단장 내정. 삼성의 존재감 확인
- 휴머노이드가 당장 큰 변화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활용 투입이 이루어지는 중

[방산] 고조되는 중동 긴장감

- K-방산 나토 수출 확대 위해 우크라이나 무기 간접지원 검토하는 정부
- 미국과 이란 긴장감 고조, 미국의 전략 자산 중동에 집결
- 캐나다, 국방산업전략 공개. 국가 안보와 경제 번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

[조선] 봄바람이 부는 조선

- 삼성중공업의 LNGC 선가 소폭 상승한 \$255M 기록
- 엑손모빌도 20~30척 LNGC 발주 추진. VLCC도 운임 강세 지속
-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위한 막판 노력. 한화오션-온타리오조선, 모호크대학 협력. 정부도 지원사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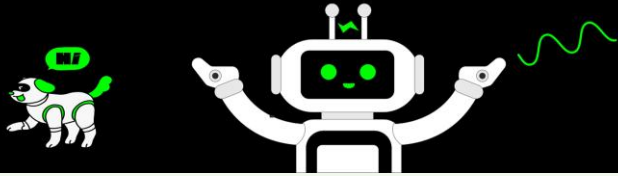
[항공] DSK 2026

- 설 연휴 72만명 해외로. 1위 여행지는 일본
- 2025년 말 기준 국내 항공사 기재 441대. 20년 넘는 노후 기재 비중 15%
- 진에어, 하반기 A321-NEO 도입. 통합 LCC 기반 재편 돌입

[해운] ZIM 합병 가능성

- Hapag-Lloyd의 이스라엘 ZIM 인수 걸림돌, 이스라엘 정부-노조 반발
- 美 연방대법원 제도에, 트럼프 무역법 122조 기반 15% 글로벌 관세 선언
- 해양수산부, 9월부터 3,000TEU급 컨테이너선 북극항로 시범 운항 예정

안녕하세요 로봇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기대감 VS 효용성

이제 시장은 휴머노이드를 단순 기대감만을 갖고 바라보지 않게 되었음. 춤추는 것보다, 어떻게하면 산업 현장에 투입하여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15)

[기대감 vs 효용성]

- 휴머노이드를 두고 다양한 시적이 혼재되어 나타나기 시작.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실제 효용성을 갖추는 것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
- 작년에 이어, 휴머노이드의 중국 춘절 갈라 참여가 화제. 1년 전 대비 동적 움직임 확연히 개선되었으나, 실제 효용성은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 춘절 특집 홍보 효과를 노리고 로봇 기업이 출연하기 위해 200억 원을 협찬한 사실도 논란. 한편, 휴머노이드의 초기 산업 현장 투입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음. 도요타 캐나다 공장에서는 미국 어질리티 로봇틱스의 '디짓'이 본격 도입되기 시작. 테스트에 3대 로봇 도입하고, 추가로 7대를 배치할 계획. 토트 운반 등 다양한 작업에 활용 예정.
-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를 두고, 2027년부터 변화가 시작되어 2028년에는 뚜렷하게, 2029년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언급. 일부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느리다'는 평가도 있으나,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여전히 긍정적인 타임라인.

Key Chart: 춘절 갈라쇼에 참여한 휴머노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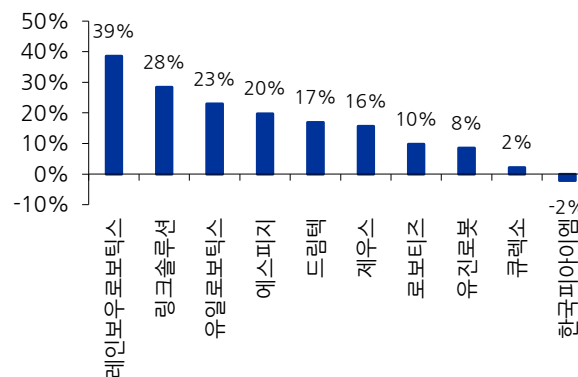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1/19~01/25)

[휴머노이드]

- LG디스플레이, OLED 포트폴리오 휴머노이드로 확대
- 감속기부터 프레임까지. 철강사도 휴머노이드 새 먹거리로

[부품/SW/기타]

- 현대차, 美 스타트업 '필드AI'에 수백만달러 투자
- 클로봇, 두산로보틱스 류경훈 前 CEO 영입
- 클로봇, MSCI 글로벌 스몰캡 지수 편입
- 코스모로보틱스 상장 돌입. 1,927억원 밸류 제시
- 케이엔알시스템 총 158억 원 규모의 사모 CB 발행 결정
- 한국AI로봇산업협회 신임회장 삼성 오준호 단장 내정

[Global]

- ISO 휴머노이드 안전기준 국제표준 논의 본격화
- 보스턴다이나믹스 로봇연구 부사장 사의
- 아마존, 로봇팔 '블루제이' 프로젝트 4달만에 중단
- 시카고 일부 지역, 자율주행 배달 로봇 확대 운영 '거부'
- 피규어 AI 손 한 단계 진화. 수술 가능 레벨 달성 '박차'
- 머스크, "옵티머스가 엄청난 영향을 일으키는 것은 2029년"
- 엔비디아, 4.4만 시간 인간 영상 학습 모델 '드림도조' 공개
- 엔비디아, 로봇 제어 특화 AI 모델 '코스모스 폴리스' 공개
- 中 고령화 대비 로봇 총력전. 2100년 노인 인구 절반 육박
- 로봇 방송출연 협찬비만 수백억원. 인지도 높이기 경쟁
- 中 창고 로봇 기업 '하이로보틱스', 홍콩 증시 상장 앞둬
- 도요타, 어질리티로보틱스 휴머노이드 생산라인 도입
- 日 야스카와, 포장 작업 자동화용 양팔 로봇 개발



Weekly Keyword

고조되는 중동 긴장감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중동 내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별개로 역내 패권국인 사우디와 UAE의 힘 겨루기도 심화되는 중. 불안감 속, 중동 내 무기 수요 증가 기대.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테디(63)

[고조되는 중동 긴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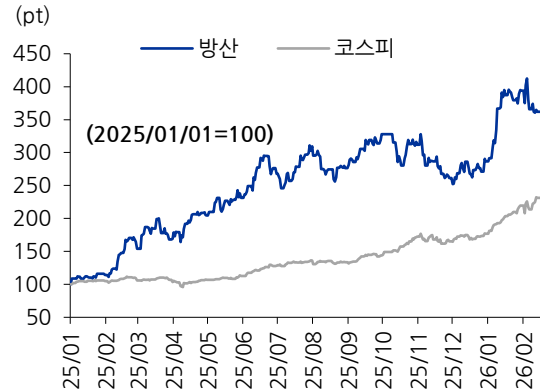
-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긴장감 최고조. 미국의 전략 자산들 중동에 집결. 이번 사태는 (1) 이란의 반정부 시위와 (2) 미국-이란 핵협상 갈등으로 촉발. 미국의 내부 정치 불안도 겹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카드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음.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대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있는 미국은 쉽사리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으나, 미국이 이란을 타격할 경우 중동 내 지정학 불안감 확대 불가피.
-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중동에서는 역내 패권국인 UAE와 사우디 사이의 힘 겨루기가 심화되고 있음. 국내 방산 섹터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로는 군사적 충돌로 인한 섹터 기대감 확대, 장기로는 중동 내 구조적 무기 수요 증가 흐름에 따른 실질적 수혜 가능성.

Key Chart: 중동 지역 미군 자산 집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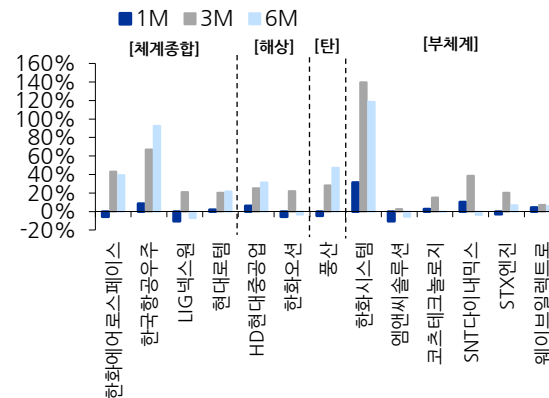


자료: 연합뉴스,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방산 주요 뉴스(01/19~01/25)

[수주/계약]

- 프랑스 싱크탱크, 프랑스 육군에 천무 도입 추천

[기업별 이슈]

- 한화에어로 "KF-21 무장 국산화 시동, 연동기술 개발 착수"
- KAI, WDS 2026 위성-통신-항공 협력 고위급 협의
- 현대로템, 공대함 극초음속 미사일 공개

[기타]

- 李 대통령 "미래전 첨단 무기 전폭적 투자"
- 정부, 나토의 '우크라이나 간접 무기 지원 체계' 참여 검토
- 올해 방산 해외 전시회 UG 10번, 한화/KAI 9개 참여

[글로벌]

- 이란, 미 핵협상 앞두고 호르무즈 군사훈련
- 中, 러시아 동맹국에 무기공장 수출, 전쟁 계속 지원 의심
- 미-러우 3자 회담 성과없이 종료. "어려웠다"
- 사우디-UAE, 삿대질 넘어 행정보복까지
- 미 공군, 수일 내 보잉 T-7 양산 결정 승인 임박
- 폴란드 "무기 구매, 기술 이전과 공급망 참여가 필수"
- 독일, FCAS 불확실성에 F-35 35대 추가 구매 검토
- 캐나다-호주, 대규모 방산 투자 계획 발표
- 사우디 WDS 방산 전시회에서 거세진 중국 공세
- 獨佛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결국 좌초하나
- 레오나르도, 필리핀에 유로파이터 제안
- 공중발사 무인기 롱샷을 X-68A로 지정. 시험 준비 단계
- 튀르키예 해군, 사상 첫 항모 탑재 무인기 실사격 성공
- 튀르키예, KAAN 실물 프로토타입 공개



Weekly Keyword

봄바람이 부는 조선

LNG와 더불어 탱커 수요 강세가 지속되고 있음. LNG도 드디어 선가 상승을 확인. 견조한 상선 시황에 더해,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긍정적 움직임 다수. 막판 뒤집기 기대.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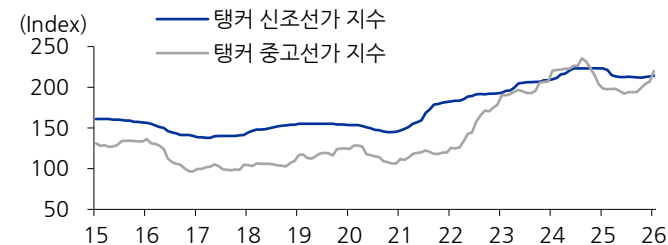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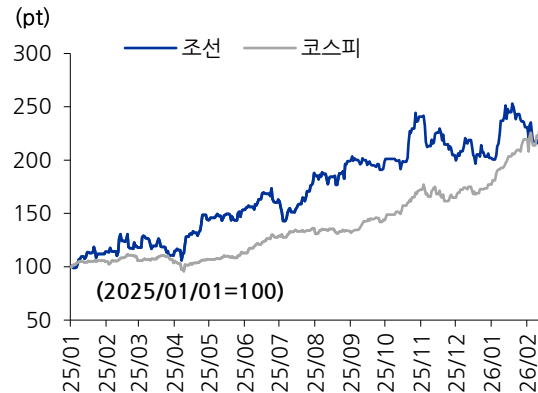
[봄바람이 부는 조선]

- 상선 시황에 따듯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함. 지난 주, 삼성중공업이 28년 납기 LNG를 \$255m 선가에 계약 체결. 드디어 LNG 선가 상승 확인. 현재 모잠비크 LNG, 우드사이드 LNG(20여척), 카타르 3차(수십척), 엑손모빌(20~30척) 등 다수의 파이프라인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조선소들의 건조 슬롯들도 점점 채워져가고 있음. GTT는 올해 150여척의 LNG 수요를 전망 중. 탱커 수요도 매우 견조. 서방의 이란/러시아 제재 강화로 톤마일 증가와 非 제재/그림자 선단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탱커 운임 상승을 견인 중. VLCC와 수에즈막스 모두 중고 선가가 신조선가를 상회.
-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도 입찰 마감을 앞두고 막판 뒤집기에 들어감. 지난 주, 한화오션과 캐나다 온타리오 조선소 및 모호크 대학교 협력 체결에 이어서, 한국 정부의 지원 약속서 서명이 이루어짐. 이번 주는 한국-캐나다 외교 &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되어있음.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 등 양국 관계는 한단계 레벨업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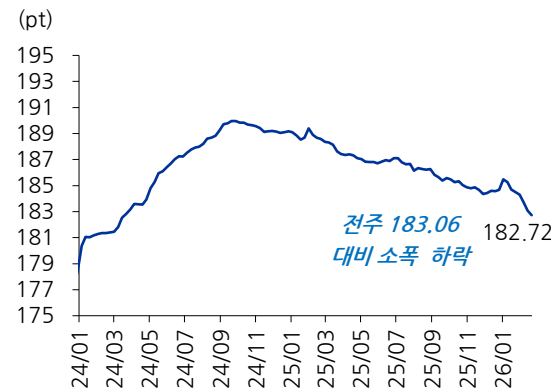
Key Chart: 탱커 신조선가, 중고선가 지수 추이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1/19~01/25)

[상선/해양]

- 삼성중공업, 28년 납기 \$255M LNGC 1척 수주
- 아르헨티나 FLNG 수주, 삼성중 vs 中 Wison 경쟁

[특수선]

- 한화오션, 온타리오조선소·모호크대학 LOI 체결
- 정부, 60조 캐나다 잠수함 정부 지원 약속 서명식
- 한-캐나다, 25일 오타와서 제2차 외교·국방 회담
- 캐나다-EU 메가 무역동맹 논의, 한국도 가입 추진
- HD현대·한화 참여 美 해군 무인수상함 수주전 대진표 윤곽

[기타]

- HD현대중, 사내 협력사에 동종업계 최대 성과급
- HD현대, 지멘스와 디지털 조선소 구축. 30년 완공 목표
- HD현대 "외국인 고용 최소화". 단순 작업은 로봇 자동화
- 주그리스 美대사 "미·한·그리스 3자 조선협정 조만간 체결"

[글로벌]

- 佛 GTT, "LNG선 150척 신규 수요 발생"
- 엑손모빌, 20~30척 규모의 LNGC 신조 발주 추진
- Woodside, LNG선 발주 결정 연기. 2차 입찰 요청
- VLCC 초강세에 선령 14년, 하루 9만달러 1년 용선 성사
- Pantheon, 형리조선소에 VLCC 4척 추가 발주
- "5년간 美 7척·中 10척" 中, 핵잠 건조 규모 첫 추월
- 마·일, 작년 10월 조선 협력 각서 후 첫 실무회의 개최
-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대표단, TKMS 회동
- 캐나다, 잠수함 입찰 앞두고 유럽 SAFE 공식 서명
- HD현대중·인코친조선 동맹 위력. CMA CGM 컨선 6척 수주



Weekly Keyword

DSK 2026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이번주 25일부터 부산에서 드론쇼코리아 2026년이 개최됨. 대한항공도 본 전시 참여 예정. 작년부터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항공 우주 분야 사업에 대한 업데이트를 기대.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63)

[DSK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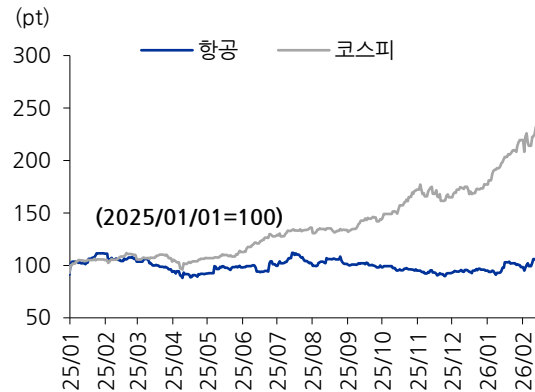
- 오는 2026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드론쇼 코리아 2026 개최될 예정. 대한항공도 본 행사 참석. 작년 ADEX 2025에 있어서, 최신 무인기 사업 동향 공개 및 업데이트 기대. 대한항공은 작년 10월 대한항공 방산 공장 2,200억원 투자 결정(1.6만평)하고, 김해 테크센터 군용기 도장 전용 격납고 신축을 완료하는 등 미래 먹거리로 항공우주 사업 부문에 주력하기 시작. 올해 1분기에는 국과연과 개발 중인 저퍼탐 무인편대기의 시범 비행도 예정하고 있는 상황. 본업의 계절적 성수기 누리는 가운데,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더해질지 주목.

Key Chart: 대한항공의 무인기 3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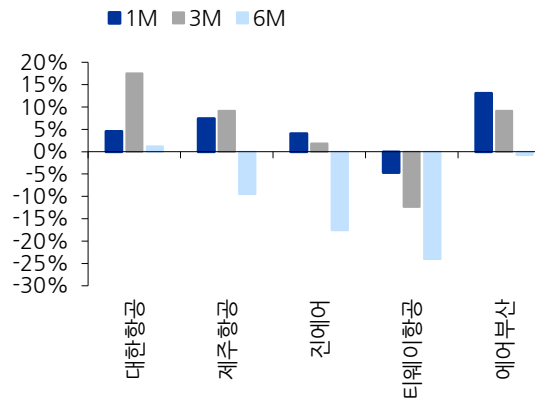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1/19~01/25)

[여객/화물]

- 설 연휴 72만명 해외로. 인기 여행지 1위는 일본
- 1월 한국인 방일, 일본인 전세계 해외여행 보다 많았다
- 항공업계, 신규 취항·증편으로 아시아 하늘길 강화
- 대한항공, 오사카 심야 편 운항 개시
- 에어로케이, 다음 달 말부터 청주~후쿠오카 매일 운항
- 티웨이항공, 인천~자카르타 노선 연다
- 이스타항공, 인천~홍콩 매일 운항

[기업별 이슈]

- 진에어, 하반기 A321-NEO 5대 도입
- 티웨이항공, 하반기 트리니티항공 사명 변경
- 티웨이항공, 국토부 과징금 소송 패소. 20억 징수

[기타]

- 국내 모든 항공사 기내서 '보조배터리 사용' 전면 금지
- 국내 항공사, 5년간 안전운항 위반에 100억 과징금
- 2025년말 국내 항공기 441대로. 15%는 20년 넘는 기체

[글로벌]

- 日, 외국인 사전심사 대상에 항공기 환승객 탑승객 포함
- 베트남 항공사들, 보잉 항공기 96대 등 54조 도입계약



Weekly Keyword

ZIM 합병 가능성

Hapag-Lloyd가 ZIM과의 합병계약 체결을 발표. 합병 시 항로 최적화, 비용절감 등의 시너지가 기대되나, 이스라엘 정부의 '골든셰어'를 중심으로 승인, 안보, 고용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가 중요.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RA 임범수

02) 368-6168_beomsu@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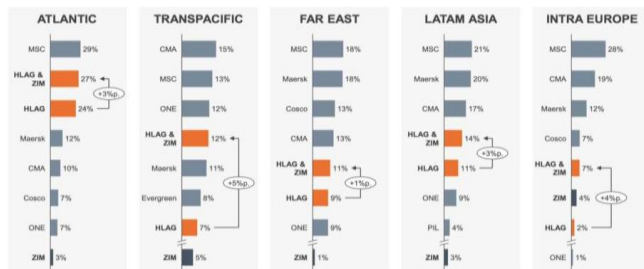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6)

[ZIM 합병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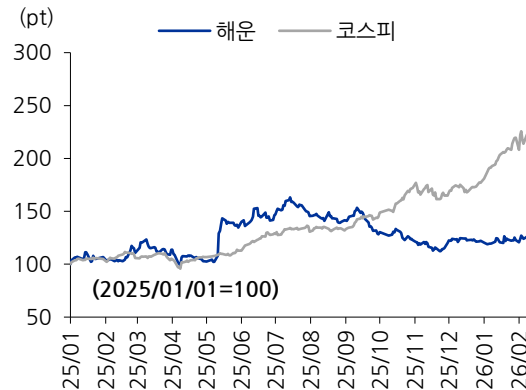
- 2/16 글로벌 5위 컨테이너선사 Hapag-Lloyd가 이스라엘 ZIM과의 합병 계약 체결을 발표. 합병 조건은 주당 35달러(2/13 종가 22.2달러 대비 +58%)로, ZIM 기업가치는 약 42억 달러로 평가. 합병 시 Hapag-Lloyd는 400척 이상의 선박과 300만TEU 이상의 선복량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약 7%에서 8.8%로 증가할 예정.
- 거래 성사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정부의 '골든셰어' 충족이 필수적이나, 현재 ZIM 사업분할 구조 문제로 이스라엘 언론 등을 통해 정부의 규제/승인 리스크 부상. Hapag-Lloyd는 당사가 ZIM 글로벌 사업을 흡수, FIMI가 이스라엘 내 일부 사업을 담당하는 구조를 제안한 상황.
- 추가로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Hapag-Lloyd의 소극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정학 리스크까지 상존. Hapag-Lloyd는 연말까지 거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ZIM 노조 파업 지속 시 9개월가량 소요될 정부 승인까지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

Key Chart: 합병 시 모든 주요 항로 내 입지 강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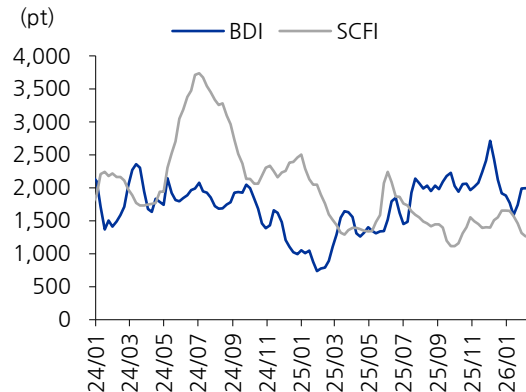


자료: Hapag-Lloyd,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iver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02/16~02/22)

[벌크선]

- 중국 재고 늘고 시만두 공급 가시, 철광석 '하방 압력' 커진다

[탱커/가스선]

- 덴마크, 이란 화물선 억류... "미국 제재 목록 포함 의심"
- 美日 무역협정에 MOL의 텍사스 VLCC 터미널 참여 명시
- 선령 14년 VLCC, 하루 9만달러 1년 용선 성사

[컨테이너선]

- Zim, 하파로이드와의 구체적 합병계약 조건 공개
- '운항선단 70만TEU 돌파' 양명해운, 최대규모 컨선 인수
- Linerlytica, 향후 2주간 태평양 횡단항로 40항차 취소 전망
- 인도, 4월부터 카보타주 복원, 환적·공급망 충격 불가피
- 美 LA항, 中 수출 부진으로 화물 물동량 3년 만에 최저
- 올해 부산항 '컨' 물동량 2540만TEU 도전

[기타]

- LX판토스 상장 지연, 중복상장 규제도 암초
- 트럼프, 무역법 122조 기반 15% 글로벌 관세 선언
- 美, 중국산 아닌 배도 '항만 수수료' 부과 검토
- 李 HMM 부산항 재언급...3월 주총서 정관변경 가능성 커져
- 북극항로 시범운항 9월 추진...러 제재 '운항전략' 시험대
- 친환경·고부가가치 중심, 지난해 항만 민간투자 5,404억원